

# 자영업 노동시장의 최근 변화

김복순\*

## I. 머리말

2008년 하반기에 불어닥친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우리나라의 실물경제에까지 영향을 주었고, 이로 인하여 고용사정 또한 심각한 부진을 경험하였다. 당시 경제위기의 최일선에 놓였던 것은 바로 일용직 근로자와 자영업자였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2009년에는 259천 명의 자영업자가 사업장 문을 닫은 것이다. 더 이상 노동시장에서 실업률을 낮추는 완충장치로서의 역할을 자영업에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최근 선진국의 경기둔화와 유럽의 재정위기 확산 우려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고 물가상승의 압력도 대단하여 하반기 경제 전망은 당초 전망치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용시장은 '빅서프라이즈'라고 표현할 정도로 훈풍이 지속되고 있다. 고용훈풍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인구 전체의 1/4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에게는 한파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멍가게, 식당, PC방 등 경기에 민감한 내수산업에 종사하는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극에 달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말 그대로 자영업 부문의 위기인 것이다.

본고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 가운데 하나인 자영업자의 고용구조를 살펴보고, 베이비붐 세대인 50대 연령층에서 늘고 있는 자영업자의 일자리 특성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sup>1)</sup>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secsaram@kli.re.kr).

1) 본고의 분석대상인 자영업자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개념이며, 영세자영업자는 자영업자 중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 II. 최근 일자리 추이와 자영업자의 고용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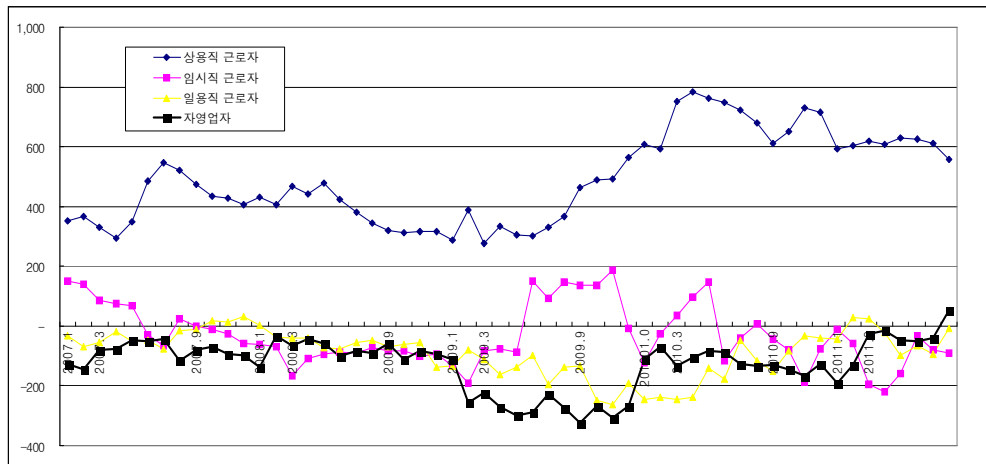
### 1. 최근 일자리 추이

2011년 8월 현재 일자리는 전년동월대비 490천 개 증가하였다. 그야말로 ‘서프라이즈’를 넘어서 ‘빅서프라이즈’ 현상이다. 2011년 8월 일자리를 들여다보면, 상용직 근로자의 증가세는 주춤한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주축으로 한 비임금근로자가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8월 들어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늘었으나, 8월까지의 올해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1년 상반기 동안 전체 일자리는 상용직 일자리를 중심으로 470천 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비임금근로자의 감소폭이 경기회복과 더불어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까지 줄어든 것이다. 이는 고용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자의 감소폭이 줄어든 것에 기인한 결과이다.

[그림 1] 경제위기 전후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1〉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고용비중 추이

(단위: %, 천 명)

		2007	2008	2009	2010	2007 상반기	2008 상반기	2009 상반기	2010 상반기	2011 상반기
고용 비중	임금근로자	68.2	68.7	70.0	71.2	68.1	68.8	69.8	71.1	71.8
	상용직	36.8	38.2	39.9	42.3	36.4	38.0	39.6	42.1	43.9
	임시직	22.1	21.5	21.7	21.3	22.3	21.8	21.6	21.3	20.5
	일용직	9.3	9.0	8.4	7.6	9.4	9.1	8.7	7.6	7.4
	비임금근로자	31.8	31.3	30.0	28.8	31.9	31.2	30.2	28.9	28.2
	자영업자	25.8	25.3	24.3	23.5	25.9	25.3	24.5	23.7	23.0
	- 고용원 있는	6.7	6.5	6.5	6.3	6.7	6.6	6.4	6.4	6.2
	- 고용원 없는	19.1	18.8	17.8	17.2	19.2	18.8	18.0	17.4	16.8
	무급가족종사자	6.0	5.9	5.7	5.3	6.0	5.8	5.8	5.2	5.2
고용 증감	임금근로자	420	236	247	517	399	300	124	497	470
	상용직	416	386	383	697	363	441	315	708	613
	임시직	29	-93	22	-34	81	-97	-71	3	-113
	일용직	-26	-57	-158	-146	-46	-44	-121	-214	-30
	비임금근로자	-138	-92	-319	-194	-122	-109	-264	-214	-58
	자영업자	-85	-79	-259	-118	-87	-73	-241	-98	-77
	- 고용원 있는	-70	-35	-10	-18	-74	-20	-39	10	-16
	- 고용원 없는	-15	-44	-249	-100	-13	-52	-202	-108	-61
	무급가족종사자	-52	-13	-60	-75	-35	-36	-23	-116	2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2. 최근 자영업자의 고용구조 변화

우리나라 취업자 대비 비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을 차지한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취업자 대비 비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8.8%를 기록함으로써 그리스(35.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나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기준 25.3%로 멕시코(27.4%), 칠레(25.6%) 등과 더불어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국가에 속한다. 일본이 9.5%를 차지하는 등 선진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10% 전후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이다.<sup>2)</sup>

선진국에 비해 높은 자영업자 비중도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변동이 컸던 1997년 IMF 외환위기시에는 임금근로자 중심의 고용조정이 이루어졌으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몰락이 비임금근로자의 고용감소의 주된 원인이었다.

2) ILO에서는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임금근로자, 고용주(Employers), 자영자(Own-account workers), 무급가족종사자, 분류불능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고에서의 자영업자는 고용주와 자영자를 합한 것이다.

<표 2> OECD 회원국의 취업자 대비 비임금근로자 비중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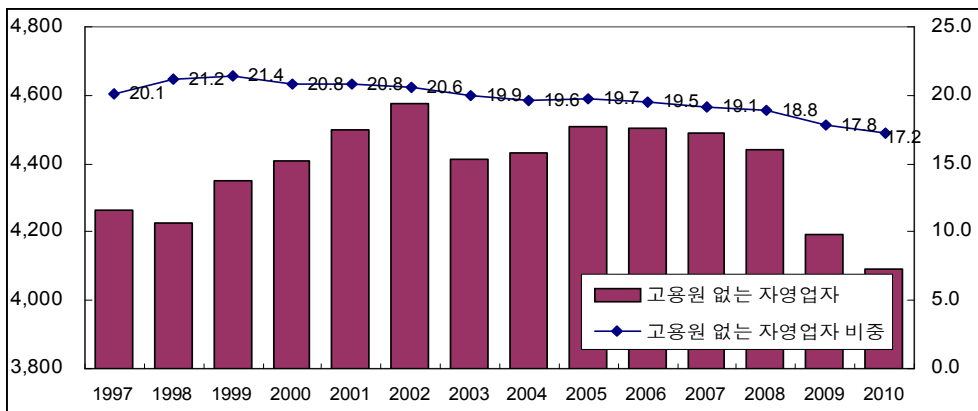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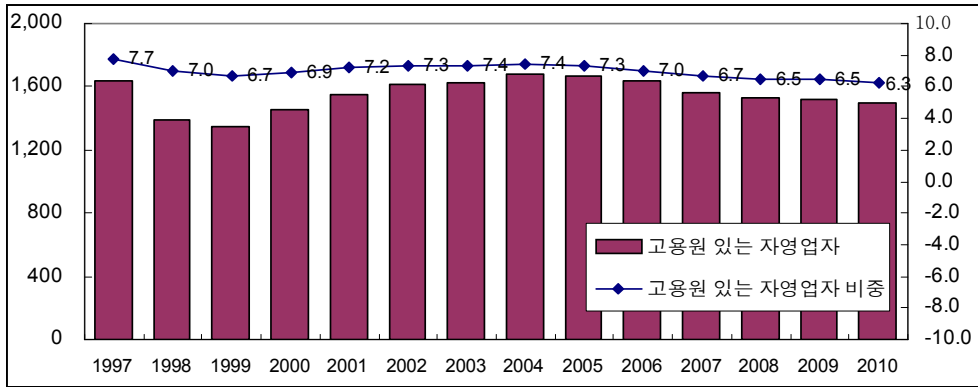
	2006	2007	2008	2009	2010
그리스	35.5	35.0	34.9	35.0	35.2
<b>한국</b>	<b>32.8</b>	<b>31.8</b>	<b>31.3</b>	<b>30.0</b>	<b>28.8</b>
이탈리아	24.7	24.4	23.9	23.5	23.7
폴란드	24.4	23.5	22.9	22.7	22.8
체코	18.4	18.3	18.4	19.0	19.6
슬로베니아	17.1	17.0	16.9	17.5	17.9
아일랜드	16.3	17.0	17.6	17.8	17.2
오스트리아	16.8	16.6	16.5	16.4	16.1
벨기에	15.9	15.8	15.8	16.0	16.0
슬로바키아	13.0	13.3	13.9	15.7	16.0
네덜란드	14.0	13.9	13.7	13.8	14.0
영국	12.9	13.0	13.0	13.3	13.6
스페인	14.2	13.9	13.9	13.7	13.6
포르투갈	14.9	14.4	14.5	13.8	12.7
핀란드	11.5	11.4	11.4	11.3	11.2
스위스	11.9	12.4	11.8	11.3	11.2
독일	11.4	11.3	11.1	11.1	11.1
룩셈부르크	9.4	9.2	9.2	9.1	9.2
프랑스	8.9	8.9	8.9	9.1	9.1
캐나다	8.9	9.1	8.8	9.2	9.0
미국	7.2	7.0	6.8	6.9	8.7
헝가리	9.3	9.1	9.0	8.9	8.5
에스토니아	8.0	8.9	7.7	8.1	8.2
덴마크	6.2	6.1	6.0	6.2	6.3
노르웨이	7.0	6.6	6.4	6.3	6.2
스웨덴	5.7	5.7	5.4	5.4	5.5
칠레	27.0	26.2	25.1	26.0	-
이스라엘	13.2	12.7	12.7	12.9	-
일본	13.0	12.8	12.3	12.1	-
멕시코	27.6	27.7	27.4	27.5	-
뉴질랜드	17.2	17.4	16.7	16.1	-

자료: <http://stats.oecd.org/>

반면 2003년 카드대란 시기와 2009년 경제위기 때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휴폐업이 고용부진의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경제사정이 좋지 않으면 생계에 위협을 받는 계층이 바로 자영업자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 자영업자(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고용 및 고용비중 추이

(단위:천 명,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11년 상반기 동안 고용은 전년동기대비 412천 명 증가하여 경제위기 이후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는 23.0%를 차지함으로써 전년동기대비 0.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취업자 기준 자영업자 비중을 보면 도소매업, 운수업, 음식숙박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개인서비스업 등 내수산업을 중심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산업부문에서의 자영업자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이거나 나홀로 사업체가 대부분이다. 2011년 상반기 동안 휴폐업을 단행한 자영업자는 77천 명으로 대부분 5인 미만 영세사업체이며, 여성이 운영하는 도소매업·음식숙박업 사업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상반기 동안 운영하던

<표 3> 산업별 자영업자 고용비중 추이(취업자 기준)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07 상반기	2008 상반기	2009 상반기	2010 상반기	2011 상반기
전 체	25.8	25.3	24.3	23.5	25.9	25.3	24.5	23.7	23.0
농림어업광업	61.1	61.3	61.1	61.5	61.9	62.2	61.1	62.2	61.7
건설업	21.8	20.2	19.5	20.9	22.2	20.4	19.0	20.9	21.7
제조업	11.7	11.9	11.6	11.2	11.6	12.1	11.4	11.5	11.0
서비스업	26.1	25.5	24.2	23.2	26.2	25.6	24.6	23.6	22.8
도소매업	37.1	36.9	36.5	35.2	37.2	36.8	36.7	36.0	33.9
운수업	45.6	44.8	45.2	44.9	44.8	44.6	45.2	44.7	45.7
음식숙박업	32.0	31.3	30.5	28.6	32.4	31.8	30.5	29.3	28.6
부동산및임대업	35.3	36.3	33.5	30.9	35.4	35.4	34.8	30.0	32.0
교육서비스업	19.6	18.9	18.6	18.5	19.6	19.0	18.4	18.7	18.5
예술스포츠	32.2	33.1	33.6	33.7	30.2	33.3	33.5	33.0	35.0
개인서비스업	44.5	43.6	41.2	39.4	44.4	43.2	42.0	39.1	39.1
기타서비스업	6.4	6.4	5.6	5.7	6.5	6.4	5.8	5.7	5.4
기타	1.2	0.6	0.6	1.3	2.0	-	0.5	1.2	1.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4> 영세자영업자의 산업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천 명)

	2007	2008	2009	2010	2007 상반기	2008 상반기	2009 상반기	2010 상반기	2011 상반기
전 체	-47	-64	-258	-95	-46	-65	-224	-95	-59
농림어업광업	-46	-14	-32	-41	-38	-24	-22	-61	-18
건설업	-29	-30	-13	36	-21	-37	-21	39	6
제조업	2	5	-26	5	5	17	-37	13	-0
서비스업	27	-25	-187	-96	7	-19	-144	-87	-47
도소매업	-65	-19	-37	-50	-92	-15	-30	-31	-62
운수업	60	-3	6	14	55	9	2	17	25
음식숙박업	-17	-19	-52	-45	-11	-16	-52	-43	-15
부동산 및 임대업	6	-1	-12	-10	7	-8	1	-22	2
교육서비스업	11	-5	13	-1	19	-7	8	15	-27
예술스포츠	-4	21	-5	-2	-19	23	7	-11	21
개인서비스업	33	-9	-63	-22	42	-12	-42	-26	4
기타서비스업	3	10	-37	20	4	8	-38	14	4
기타	-0	-0	-0	1	0	-1	-	1	-0

주: 영세자영업자는 5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사업체의 문을 닫은 영세자영업자는 59천 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도소매업(-62천 명), 교육서비스업(-27천 명), 음식숙박업(-15천 명) 등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자영업자의 감소세 또한 여전하다. 2011년 상반기 동안 여성 자영업자는 1,499천 명으로 나타나 전년동기대비 73천 명이 감소하였다. 특히 남성 영세자영업자는 5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한 반면, 여성 영세업자의 감소폭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영업자의 학력별 분포를 보면, 고졸 이하 저학력층의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최근에는 전문대졸 학력층의 창업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층으로는 최근 고용증가세를 주도하는 중심축인 50대 연령층과 60세 이상 고령층에서의 생계형 자영업의 창업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자영업자/영세자영업자의 성별 고용비중 추이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07 상반기	2008 상반기	2009 상반기	2010 상반기	2011 상반기
자영업자	남성	69.9	70.3	71.1	71.4	70.0	70.2	71.1	71.0	72.0
	여성	30.1	29.7	28.9	28.6	30.0	29.8	28.9	29.0	28.0
영세자영업자	남성	68.3	68.8	69.6	69.9	68.3	68.6	69.7	69.5	70.5
	여성	31.7	31.2	30.4	30.1	31.7	31.4	30.3	30.5	29.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6〉 자영업자/영세자영업자의 학력별 고용비중 추이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07 상반기	2008 상반기	2009 상반기	2010 상반기	2011 상반기
자영업자	중졸 이하	33.1	32.6	31.6	30.7	33.1	32.6	31.6	30.4	30.2
	고졸	42.0	41.1	41.4	41.9	42.3	41.0	41.5	41.9	42.7
	전문대졸	6.3	6.9	6.8	7.2	6.1	6.9	6.7	7.1	7.5
	대졸 이상	18.6	19.4	20.2	20.2	18.5	19.5	20.2	20.5	19.6
영세자영업자	중졸 이하	35.2	34.6	33.7	32.7	35.2	34.7	33.7	32.5	32.0
	고졸	42.2	41.4	42.0	42.1	42.4	41.4	42.0	42.2	43.0
	전문대졸	6.1	6.7	6.5	7.0	5.9	6.7	6.4	6.9	7.2
	대졸 이상	16.6	17.3	17.9	18.2	16.5	17.3	17.9	18.4	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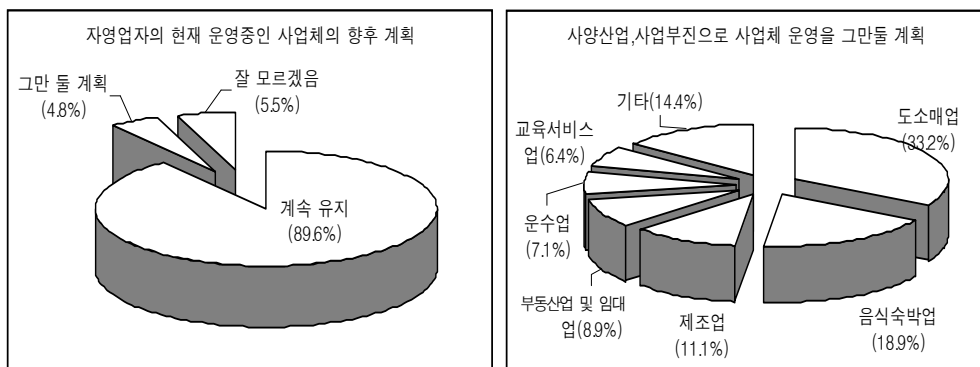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3. 자영업자의 향후 계획

통계청에서는 2010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자금 조달방법과 향후 계획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영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사업자금 조달방법으로는 ‘본인 또는 가족이 마련한 목돈(적금, 퇴직금, 명퇴금 등)’이 전체의 5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현재 사업체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현 사업체를 그만둘 계획’은 전체 응답자의 4.8%로 나타나 2009년 4.9%에 비해 0.1%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업체를 그만둘 계획’

[그림 3] 자영업자의 사업체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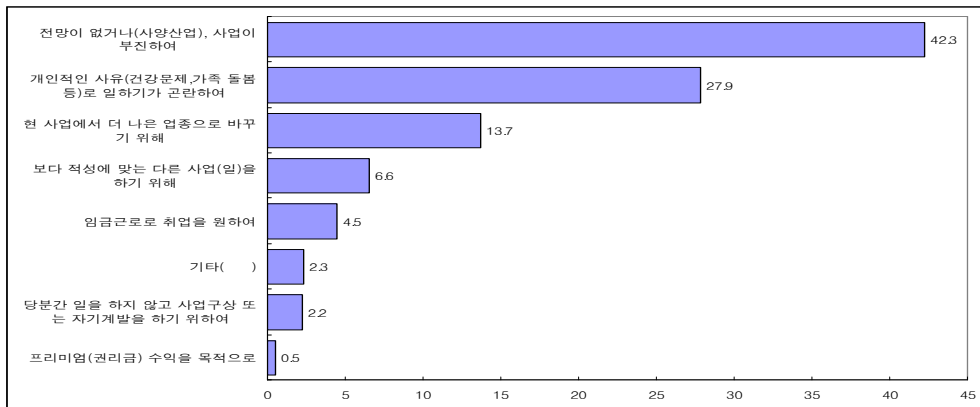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통계청(2010. 8),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그림 4] 현재 사업체를 그만두려는 이유

(단위 : %)



자료 : 통계청(2010. 8),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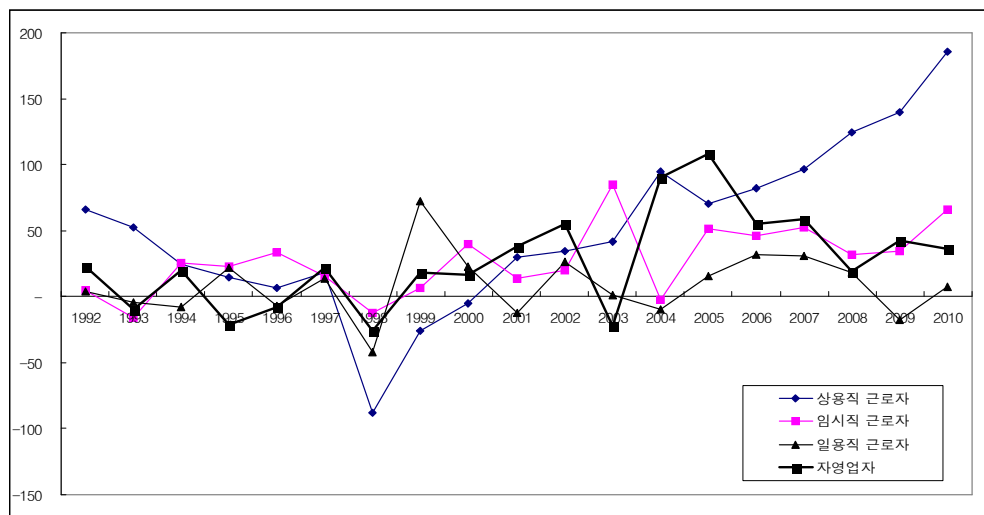
이라고 응답한 사업체 중 ‘전망이 없거나 사업이 부진하여’(42.3%), ‘개인적인 사유로 일하기가 곤란하여’(27.9%), ‘현 사업에서 더 나은 업종으로 바꾸기 위해’(13.7%)서 사업체를 그만둘 계획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사양산업, 사업부진으로 사업체 운영을 그만두겠다고 응답한 자영업자는 2009년에 비해 7.3%p나 증가하였으며,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종사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Ⅲ. 50대 연령층의 영세사업체 중심으로 창업 활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증가세는 2011년 8월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인 자영업자의 고용감소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자영업의 지속적인 구조조정 여건 속에서도 자영업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연령층은 50대 이상 중고령층이다. 2011년 8월 현재 50대 연령층의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89천 명이 증가하는 등 상반기 동안 전년동기대비 54천 명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50대 이상 중고령층에서의 자영업 창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령층은 정년을 맞이하여 퇴직 후 자영업에 뛰어들어 제2의 인생을 살고자 계획하는 경우가 많다.

[그림 5] 50대 연령층의 종사상 지위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베이비붐 세대의 주축인 50대 연령층의 자영업자 고용비중은 2011년 상반기에 33.2%를 차지해 전년동기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50대 연령층의 자영업자는 2011년 상반기에 55.7%를 차지함으로써 경제위기 이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0대 영세자영업자는 대부분 도소매업과 건설업, 운수업, 개인서비스업 등 전통적 생계형 창업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세자영업자 전체를 산업별로 보았을 때 도소매업에서의 감소폭이 상당히 컸던 것과 상반된 결과이다.

<표 7> 자영업자의 연령별 고용증감

(단위: 천 명, %)

	2007	2008	2009	2010	2007 상반기	2008 상반기	2009 상반기	2010 상반기	2011 상반기
자영업자	-85	-79	-259	-118	-87	-73	-241	-98	-77
20세 미만	3	-1	-1	1	1	-2	-2	1	-0
20대	-11	17	-25	-15	-13	15	-14	-9	-26
30대	-69	-94	-106	-27	-82	-81	-114	-12	-90
40대	-84	-33	-124	-102	-83	-23	-126	-97	-67
50대	59	19	42	36	59	13	44	51	54
60세 이상	17	12	-46	-12	31	6	-29	-32	52
50대 비중	25.0	25.6	27.5	28.8	24.8	25.4	27.2	28.6	3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8> 자영업자의 연령별 고용비중 추이(취업자 대비)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07 상반기	2008 상반기	2009 상반기	2010 상반기	2011 상반기
자영 업자	20세 미만	5.1	5.2	4.9	4.8	5.5	5.0	4.6	4.6	4.0
	20대	5.3	5.9	5.4	5.1	5.2	5.7	5.5	5.3	4.8
	30대	18.5	17.0	15.7	15.3	18.6	17.2	15.8	15.6	14.1
	40대	29.6	28.8	27.0	25.3	29.8	29.2	27.3	25.8	24.5
	50대	36.9	35.6	35.0	33.6	37.4	35.7	35.3	34.1	33.2
	60세 이상	49.0	49.1	46.4	45.2	49.1	49.4	47.6	45.8	45.3
영세 자영 업자	20세 미만	0.3	0.3	0.2	0.3	0.3	0.3	0.3	0.2	0.2
	20대	3.4	3.6	3.2	3.1	3.4	3.4	3.6	3.4	3.3
	30대	15.5	14.1	12.6	12.2	16.8	15.6	14.4	12.8	12.6
	40대	41.4	38.7	34.4	30.6	46.7	42.6	39.6	35.5	31.5
	50대	52.8	53.3	53.7	53.7	54.4	53.4	54.0	55.0	55.7
	60세 이상	12.4	12.6	12.7	12.7	12.1	12.2	12.4	12.5	12.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베이비붐 세대인 50대가 은퇴 이후 노후대비로 자영업을 창업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는 실업률을 낮추는 데 있어서 완충장치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가 경쟁이 심한 생계형 서비스산업에 집중되어 있어 도산의 확률도 높아 빈곤화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우려 또한 있다.

<표 9> 50대 영세자영업자의 산업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천 명)

	2007	2008	2009	2010	2007 상반기	2008 상반기	2009 상반기	2010 상반기	2011 상반기
전 체	57	24	38	25	58	13	45	37	42
농림어업광업	-9	4	6	-8	-13	2	6	-8	-10
건설업	8	1	10	18	9	-1	8	19	18
제조업	6	16	2	11	6	17	-4	20	1
서비스업	51	3	20	3	55	-5	34	7	31
도소매업	-9	-8	7	4	-12	-10	5	6	29
운수업	14	2	16	15	16	3	12	21	8
음식숙박업	0	12	8	-11	-1	11	12	-7	-14
부동산및임대업	4	0	-2	-1	3	-2	5	-8	-1
교육서비스업	-1	-1	-0	-1	-1	-1	-0	0	-1
예술스포츠	32	-3	-7	-10	36	-4	1	-12	4
개인서비스업	1	-2	1	0	3	-2	1	-0	0
기타서비스업	9	3	-2	7	11	0	-1	7	7
기타	0	-0	-	0	1	-1	-	0	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III. 맺음말

2011년 8월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중은 23.2%에 달해 OECD 회원국 중 자영업 비중이 높은 국가에 속한다. 지속된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로 내수관련 산업인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다수가 5인 미만 사업체이거나 나홀로 경영을 하는 사업체이다. 자영업의 비중이 높은 산업들은 대부분 경기에 민감한 산업들이다. 사실 IMF 외환위기, 카드대란,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많은 자영업자가 문을 닫아야 했다. 그러나 이처럼 고용사정이 좋지 않았던 때에도 자영업자의 고용

은 지금보다는 나왔다. 자영업 부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구조조정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다만 베이비붐 세대인 50대 연령층에서의 자영업 창업은 경기가 회복되면서 활발해지고 있다. 이들은 5인 미만 영세사업체로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이 대부분이다. 다시 말해 대부분 생계형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그만큼 경쟁강도도 높아 도산의 확률도 높다는 것이다. 결국 자영업자의 빈곤화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노동시장 안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만큼 자영업의 현주소는 그야말로 위기이다. 민생과 직결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생계형 서비스업의 지원을 위한 육성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자영업자에게 맞춤형 직업교육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빈일자리로의 원활한 이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기침체에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자영업자의 기초체력을 강하게 다지는 정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김복순(2009), 「경제위기 최일선에 놓인 영세자영업자의 일자리 추이 및 시사점」, 『노동리뷰』 3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이승렬 외(2009), 『자영업 노동시장 연구(Ⅰ): 자영업의 변화 추이와 특성』, 한국노동연구원.

\_\_\_\_\_ (2009), 『자영업 노동시장 연구(Ⅱ): 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보장』, 한국노동연구원.